

■ 美 쇠고기 전면 개방 수입조건 고시 새쟁점 부상

與, 美 쇠고기 파동 대처 자성 목소리

야권 “시행 미루고 재협상 나서라”  
정부 “명백한 근거 없는 연기 불가”

정부 부처간 ‘엇박자’ 쓴소리  
민심 수습책 靑에 전달키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과 광우병 과담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쇠고기 전면 개방과 관련, 협상의 결과물인 새 '수입조건'의 고시, 즉 국내 발효 시점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들은 고시를 연기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립된 반대 의견이 합의 내용을 뒤집을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마냥 고시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민주당은 8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무기한 연기할 것을 촉구하며 연기가 관철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고시 연기→국회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재협상' 수순의 해법도 함께 제시했다. 전날 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민병 소속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도 "새로운 수입 조건은 국내 절차(고시)로 공

고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협상에서 합의했다고 이를 반드시 고시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입법예고 이후 의견을 수립, 우리가 고시를 늦춰나가면 미국 쪽에서 재협상을 요청해올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정부>=이번 한미 쇠고기 합의문 부칙 1항에는 시행일과 관련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돼있다. 다만 합의문 서문에 "한국은 5월 15일에 법적 절차가 종료돼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였다"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우리 정부가 15일에 반드시 고시해야 한다고 의무를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시를 무기한 늦추는 것은 곧 이번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하자는 뜻을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로만, 정부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홍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지난 수 차례의 설

명회와 청문회 등에서 밝혔듯이 현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지난 18일 타결된 협상을 다시 하자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고시가 시행된 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재협상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립된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부분 정서적 반대 의견이고, 만일 끝까지(13일까지) 뚜렷하고 객관적 근거가 수반된 반대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고시를 늦출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한 관계자도 정치권의 쇠고기 고시 연기 요구와 관련,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연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새 수입조건은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정리 작업을 마치고 다음 주 중 확정 고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은 8일 광우병 발생시 미국산 쇠고기 즉각 수입중단 발표로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 중단 결정이 지난 6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당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결론났음에도 불구하고, 발표 과정에서 조율 미비로 정부측과 혼선 양상이 빚어졌다면서 집행과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따라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계기로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당 차원에서 민심 수습책을 마련해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재섭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승수 총리와 그에게 고위당정회의를 할 때 통상마찰이 있어도 광우병이 생기면 수입중단을 한다고 결론을 낸 것"이라며 "그러면 어떻게 (그날) 하루종일 쇠고기 교섭담당자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돼 어제 아침 신문까지 당정이 결론을 안 낸 것처럼 됐다"며 정부측의 능가대응을 지적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그저께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총리도 광우병 발생 위험이 있을 때는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과 합의를 했다"면서 "발표 과정에서 잘못 전달돼 혼선을 가진 것처럼 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열린 국회 분회의 정치·통일·외교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계기로 불거지고 있는 정부의 위기관리

부족 및 부처간 엇박자 등에 대해 여당 의원들의 쓴소리가 덧붙여졌다. 경남 김해갑 출신 김경권 의원은 미리 배 포함한 원고에서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국민이 새 정부에 화가 많이 나왔다"면서 "모든 일에 대통령이 한 발 앞서가고 공직사회는 그 뒤를 쫓아가는 수동적 자세에 머물러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차 "美 수입 중단 허용하라" 대통령실 개편·국정 시스템 보완 착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8일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 미국측에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허용을 촉구했다. 지난 6일 쇠고기 재협상 가능성을 거론하며, 정부의 대응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한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방한중인 스티븐 스미스 호주 외교장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고 배석한 이정현 비례대표 당선자가 전했다. 박 전 대표는 면담에서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지 않느냐"면서 "광우병 소가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해도 좋다고 미국이 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여권은 8일 쇠고기 파문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당·정·청의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 국정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등을 통한 '광우병 과담'이 급속히 확산해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데도, 당·정간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청와대와 정부 간 유기적 공조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는 등 국정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이 국정 컨트롤 타워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실패했다는 내부 자성론이 대두되면서 비서실 개편을 추진키로 하고 수석실별로 인원·업무 재

조정을 위한 방안을 제출토록 했다. 특히 '광우병 과담'에 대한 초기 대처 과정에서 사실상 기능이 실종되다시피 한 정무, 홍보, 민정라인 등에 대한 대폭적인 보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중폭 이상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측에서는 긴급 현안이 발생할 경우 한승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 간 회의를 즉각 구성, 가동해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처가 가능토록 하는 등 총리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또 총리실과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 대변인들과 상시 회의를 갖는 등의 홍보 단일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연합뉴스

야 3당, '쇠고기 국조' 등 강공 드라이브

야권은 8일 쇠고기 파문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당·정·청의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 국정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민주당 등 야 3당이 8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협상의 경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쇠고기 재협상 촉구결의안'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김홍준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천영세 민주노동당 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날 합의했다고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이날부터 의원서명에 착수하기로 했고,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야 3당은 또 오는 15일로 예정된 쇠고기 협상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 연기를 촉구했으며, 통상절차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쇠고기 청문회를 통해 협상의 책임소재 규명이 미진했고

의혹이 있는 부분이 많아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며 "통상부문에 대한 책임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는 13, 14일 통일외교통상위의 청문회 이후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장관 고시가 강행될 경우 관련된 야 3당의 공동 대응 방법에 대해 3당 원내대표가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야 3당은 그러나 쇠고기 협상 무효화 특별법 제정 합의도출에는 실패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학편입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www.kimyoung.co.kr  
대학편입 김영에 맡겨라!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한의대편입/ 의약대편입  
매일 공개설명회 10시/2시/ 4시/ 6시  
★ 2009 편입대비 강좌안내 ▶ 종합영문법, 어휘이론, 독해이론, 논리완성, 기초입문 수험생을 위한 M T, 자기점검을 위한 주간 TEST/ LEVEL TEST/ 월간 TEST

저렴한 광고비 뛰어난 광고 효과!  
생활안내 광고  
광고접수 및 문의 직통전화: 227-9600 FAX: 227-9500

= 합격률 전국 1위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재직자 수강지원과정 수강료 50% 환급과정  
현재상담접수중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 건너편) 236-2467~8  
고객무료전화 080-0236-2468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한국경제TV·부동산TV강사진  
개강 매월초 주야 합격  
합격수강 회원모집  
www.mdgoal.co.kr

공무원 완전 대비  
행정, 교행, 세관, 관세, 감사, 법학, 경찰, 교정, 모총, 소방, 전산, 특직, 특고, 특고, 특고  
www.mdgoal.co.kr